

2015년 2월 9일 새벽말씀

아침 말씀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기본이 닦여진 터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초가 다져진 터전 위에서 집을 짓게 되고,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을 때는 돌을 갖다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산에 뽕쪽한 돌 두 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기초가 흔들려서 내려놓았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계속 잡아놓고 묶어놓고 했는데, 묶어봐도 결국 끈이 끊어지게 생겼기에 돌을 내려놓고 기초 돌을 갖다 뒀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법칙은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세계도 기초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초가 닦여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섬리나라의 세계로 그만큼 닦여진 세계까지 왔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얻고, 더 이상적인 것을 얻으려면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더 이상적으로 바위라도 닦아서 봐야만 거기에 역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산을 올라가다가 자연성전 바위 앞은 시멘콘크리트를 한 자나 쳐 뒀습니다. 거기로 앞으로 포클레인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가 약한 곳에는 큰 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을 하고 싶거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더 이상적으로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각 교회가 불어나려면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인 것이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 대한 것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세계로 보면 잘 가르치는 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강사가.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잘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 모두 잘 갖춰져 있어야 교회가 자동적으로서 교인들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곧 성서의 말씀을 근원을 가지고 서있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흔들리고 맙니다.

기초가 완벽히 되어있고 자기가 완벽히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치 못한 사람들은 늘 완전치 못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된 자에 게만 완전된 말을 할 수 있지, 미완성적인 사람은 미완성적인 얘기밖에 못합니다.

보는 것도 각각이고, 느끼는 것도 각각이고, 깨닫는 것도 각각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전부 각각입니다.

본인이 중심이 딱 서있지 않고 신앙의 중심이 서있지 않은 이런 상태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얻기를 바라지 말라! 마치 물거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닦여져 있어야 됩니다.

바위 위에는 100톤짜리 크레인이 가서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는 50톤짜리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바위같이 단단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위의 반석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에 서있는 것은 기둥이 되었든지 돌이 되었든지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흙바닥 위에 무엇을 얹어놓으면 넘어집니다. 결국 자빠지고 맙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없고, 줄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 줄 수가 없다!

왜? 말씀에 의해서 보면, 돼지나 어떤 금수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 코에다 금 고리를 걸어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돼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산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뒤바뀌어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자민권이 됐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오면 살 수가 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못 삽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섭리권에 있다가 세상으로 탈선되면 그렇게 괴롭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건달만한데. 따뜻한 세계에 있다가 추운 지역에 가면 더 못 견디듯이, 아예 반쯤 추운 지역에 있으면 견디낼 수 있듯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기초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닦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날마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기초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축구를 할 때도 상대가 볼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봐가면서 주지, 못 잡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볼 잡을만한 사람,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볼이 거침없이 계속 날아옵니다.

나한테 볼이 왜 많이 오는가 하면 득점율이 있으니까 나한테 자꾸 주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성이 있으니까 평소에 더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닦고 깎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물은 단단한데 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땅에 물이 괴는 것을 봤습니까? 단단한데 물이 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물질도 고이고, 또 무엇이고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갈밭에는 비가와도 그대로 빠져나가잖아요? 단단한 곳에 물이 고이듯이 여러분 마음도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해야 무엇인가 고이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 농사를 지을 때도 기초가 되는 땅이 좋지 않으면 곡식이 안 됩니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거름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마음을 고치고, 근본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천만 다행스럽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역사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초를 닦아라. 말씀을 보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데에 대해서 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었는데, 누구는 노력을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알고하는 사람은 못 따라 갑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은 알고 하는 사람을 못 따라 갑니다. 어떤 것을 알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따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돌을 쌓아 놓고, 우리끼리 볼 때는 “야~ 야~” 하고 그냥 했지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기적적인 느낌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지긋하게 오랫동안 못합니다. 작품 같은 것을 해도 오랫동안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작품을 해도 굉장히 오래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씩 합니다.

독일이나 불란서 사람들은 집 한 채를 지을 때 10, 20, 30년씩 걸려서 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년도 안 걸립니다. 그저 석 달, 아니면 6개월이면 짓습니다. 6개월이면 아파트 큰 것도 짓습니다.

외국사람들은 그런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보통 30년씩 걸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해서 금방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얼른얼른 해서 후닥닥 해치워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은 좋은

데, 영구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하십니다. 빨리 해도 튼튼하게만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해서 단단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고 수리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꼭 들어갑니다. 빵을 하나 찌는 것도, 밥을 하는 것도, 전혀 시간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수리적인 기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지긋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닦아야 됩니다. 안 닦고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닦고, 양심도 닦고, 행실도 닦고! 닦는다는 것은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연습 하다보면 닦입니다. 닦고, 깎고, 자르고, 문지르고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다보면 그것을 한 표가 납니다. 오랫동안 닦은 것은.

돌을 10년씩 문질러보면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놔둔 것, 물이 흘러 내려올 때 닦인 것은,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씩 계속 물이 내려오면서 닦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랑의 돌을 잘 주우면 비싼 것이 있습니다. 큰 것이 많아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강가의 돌도 오랫동안 수마현상에 의해서 닦여지면 비싼데,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우선 눈에 급한 대로 얻으려고만 하는데 사람을 닦는 것은 10-20년씩 걸립니다.

우선은 내가 닦아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복의 근원에 동참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닦아서 여러분들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닦아 들어가야 됩니다. 닦아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떤 사람은 볼 차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볼을 차면 힘들고 땀만 나고 다리만 아프고 통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러나 볼을 많이 차는 선생님 같은 입장은 볼을 차고 나면 마음도 시원하고 좋고, 몸도 부들부들해서 좋고,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안 차면 막 찌시고 아픉니다. 나는 오히려 안 해서 아픈데 딴 사람들은 해서 오히려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입장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터득하고, 닦고, 깎고, 자르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살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걸리적거립니다. 나무를 끊을 것을 끊지 않고 다녀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맨날 다리 굽히지, 몸 굽히지, 옷도 찢어놓고, 얼굴 찢어놓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거기를 닦아 놓아보십시오.

길 닦기, 도 닦기, 마음 닦기라고 맨날 닦아놓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라! 행동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말씀으로 깎고 닦는 것입니다.

돌을 수마시킬 때, 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넣어서 사정없이 강하게 때려서 수마현상이 일어나 깎이게 하는 것입니다.

닦아라! 깎아라! 날마다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일단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깎아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나무도 산에서 베어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올 때 가지가 길면 맨날 걸립니다. 걸려서 못 옵니다. 끊고서 와야 됩니다. 잘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깎을 것을 안 깎고 오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걸리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깎아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깎는 것인가?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부분을 닦을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이 닦을 것인가?’

가다보면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가다보면 걸리잖아요? 그것을 깎으라는 것입니다. 가다보면 역시 뭔가 거추장스러운데 그것을 닦고 깎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는 현상입니다. 기본이 되어있어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기본이 되지 않은 곳에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풀밭에다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밭에다 수박씨를 뿌리겠습니까?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저기에는(논골) 수박구덩이를 파 뒀습니다. 그 밑에다 거름을 뿌려놓고 싹 덮어뒀습니다. 그런 위에다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냥 풀밭에 심는 것이 아니고, 다 닦아놓고 준비해놓고 심는 것입니다.

꽃도 심으려면 밑에 다 해 놓듯이 닦아라! 하루 이틀에 닦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10

년 계산해서 닭으라는 것입니다. 작으면 한 3년 계산해서 닭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면 한 7개월 동안 닭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닭고, 자기 양심도 닭고, 잘못된 사고를 전부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성신은 원리원칙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면 해 주지만 하나님은 원리원칙입니다. 더러우면 통하지 않고 깨끗해야 통하고, 나아가서는 의심하면 안 통하고 절대 믿어야 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나가야 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돼서 못 통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만큼 말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통하냐? 이미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합니다.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닫고, 섭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입장과 똑같으냐면 이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는 것은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많이 받을 것도 있고, 더 얻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얻을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닭으라고 했습니다. 깎으라고 했습니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편하다고 했습니다.

돌도 자르고 끊고 문질러서 건물을 짓듯이 너희들도 신앙의 건물이 되는 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영부영 따라왔지만, 이제는 모두 깎고 끊고 자르라고 했습니다. 깎고, 자르고, 다듬은 다음에 대리석 건물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깎으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깎지 못하고 끊고 말아버리는데 끊고서 문지르고 다듬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흑암도 어둠도 이기고, 원칙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도전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삼고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중심한 전국과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모두가 치료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마귀와 사탄을 전멸시키고, 날마다 주의 성지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국 230군데의 교회와 온 지구촌을 돌아보시옵소서.

특히 일본에서 공산당들이 우리 단체를 지적하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함이 크시옵소서. 그 뿌리들이 그곳에 있고, 종교들이 왔다 갔다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사 여호와의 말씀의 검이 그곳을 치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수고하는 애쓰는 캠퍼스와 모든 직장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관리하는 자들을 기꺼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